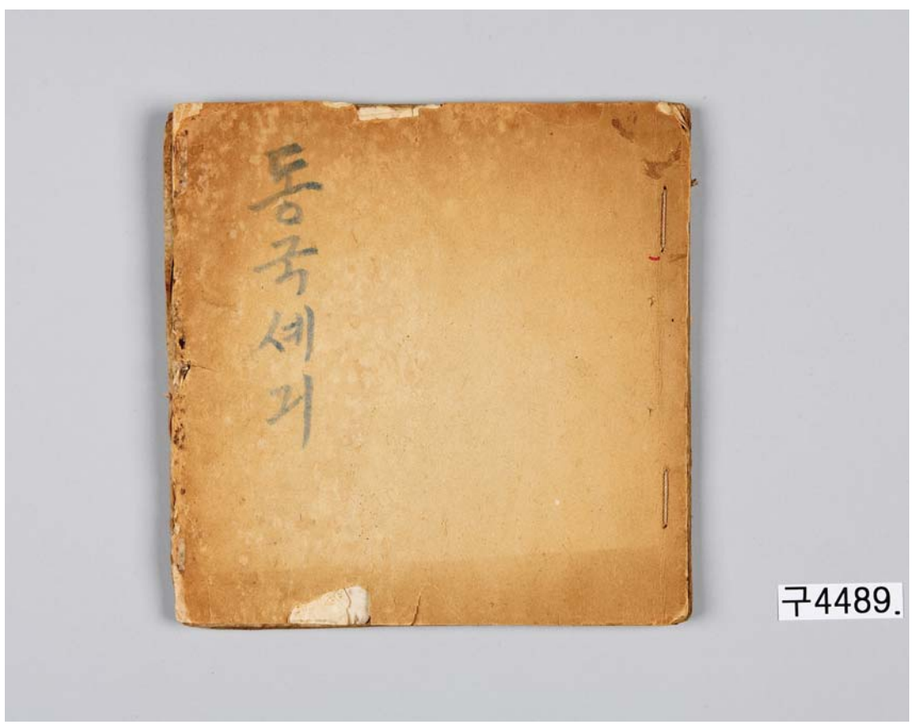
서귀포에서 바라본 한라산.



동국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한라산=영주산' 특정 근거·논리 타당성 불분명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9〉

2부 한라산

(5) 삼신산, 3신산인가 3신의 산인가

동국세기, 한라산은 영주산 기록

옛사람들이 삼신산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왔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 곧 그것이라고 지목해 온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동국세기'라는 책에는 금강산은 봉래산, 지리산은 방장산, 한라산은 영주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출판연대는 알 수 없다. 세종 재위 연간 서기 1418~1450년 중에 출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수광은 1614년 편찬한 '지봉유설' 권42, 지리부 산조에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삼신산은 우리나라에 있으니, 금강산은 봉래산, 지리산은 방장산, 한라산은 영주산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중환은 1751년 발간한 '택리지' 복거총론에서 '세상에서는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차천로는 그의 '오산설림'에서 '삼신산은 모두 우리나라에 있으니 방장산은 곧 지리산이고 영주산은 곧 한라산이고 봉래산은 곧 금강산'이라고 했다. 이 책의 간행 시기는 저자 차천로가 1556~1610년에 생존했으니 16세기 말경일 것이다. 정렴은 '우리나라에는 삼신산이 있으며 백일승천도 보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일이 있음이 '북창선생시집'의 '북창선생행적'에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학자 정렴(1506~1549) 일가의 시문집으로 1630년경에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홍만종도 그의 '해동이적'에서 '우리나라는 산수가 천하에서 첫째가니 이른바 삼신산도 모두 이 지역 안에 있다'라고 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널리 일컬어지고 있는 말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예부터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믿어 온 것은 사실이다. 1530년(중종 25)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 1653년에 나온 이원진의 '탐라지', 1702년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1721년에 만들어진 '영주산대총도', 1750년대 초에 나온 '해동지도'에도 영주산이라는 기록이 있다.

삼신산이 각각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지칭한다는 기록은 1450년 '동국세기'에 나오므로 영주산을 한라산이라고 한 첫 고전일 것이다. 다음으로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610년 경 '오산설림', 1614년 '지봉유설', 1630년 '북창선생시집', 1653년 '탐라지' 등의 순이다.

태백산 곧 삼신산?

한편, 삼신산이라면 봉래, 방장, 영주 등 당연히 3개의 산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할 부분도 있다. 삼신산은 3개의 신산이라는 것이 보편적 흐름이다. 그러나 이걸 좀 달리 읽으면 '3신의 산'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다. 삼신산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기'라는 책에도 3개의 신산이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앞에 인용한 '사기'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자.

'제(齊)의 위왕, 연(燕)의 소왕 때부터 사람을 시켜서 바다에 들어가서 봉래, 방장, 영주를 찾게 했다. 이 삼신산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발해 속에 있는데 인간을 떠나기 그리 멀지 아니하다. …일찍이 거기까지 간 사람도 있는데, 여러 선인 및 불사약이 모두 거기에 있으며 거기에 있는 만물과 금수는 모두 붉(白)이다. 황금과 금은으로 궁궐을 지어 놓고 있다.'

이 이야기가 '3개의 신산'에 해당할까 아니면 '3신의 산'에 해당할까.

환인, 환웅, 환검(단군)의 3신(神 혹은 聖)과 인연이 있는 산으로서의 태백산(백두산)을 지칭한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산신(産神)으로 '삼신'을 신앙하는 습속이 있는데, 이 삼신이 바로 3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인(조화신, 칠성신), 환웅(교화신, 독성), 단군(치화신, 산신)은 각각 다른 3신이지만 하느님으로서는 1신이다. 따라서 3신은 곧 하느님이고 태백산은 곧 '삼신산'이라는 것이다. 3신신앙은 널리 행해지게 되었는데, 고려 시대엔 삼성사(원래는 삼성당, 조선 초에 와서는 삼성사 또는 삼성묘로 개칭)가 있었고, 평양엔 '단군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옛날부터 사찰에는 '삼성각'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삼신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3신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태백산이 3신산 즉 3신의 산이라는 것이다.

미스터리의 삼신산

결국,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이 3 산이 곧 3 신산이라 판단하기에는 별다른 뚜렷한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엔 산이 많은데 왜 하필 이들 3개의 산으로 특정했는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다. 왜 한라산이 영주산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제주도 사람들도 영주산이라 한 적이 있는지 등은 기록이 없다.

더구나 '사기'라는 책은 중국 전한의 사마천이 상고시대의 오제~한나라 무제 태초 연간(BC 104~101년)의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통사이다. 기원전 100년도 더 전의 책이다. 기원전 82년에 고구려족이 한 4군 중 임둔, 진번군을 공격 축출하고, 기원전 75년에는 현도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으로 축출하면서 세력을 키워 가는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기원전 57년 혁거세가 즉위하면서 신라가 건국했고, 그 20년 후인 기원전 37년 고구려는 주몽이 졸본부여에서 즉위하면서 건국했다. 백제는 이보다도 거의 20년 후인 기원전 18년에 건국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아직 집단이나 통치체제가 성립하기 전 상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부른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영주산을 한라산이라 특정할 근거도 한라산 즉 영주산이라는 논리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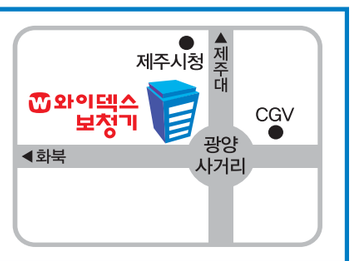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